금강의 지혜로 번뇌와 재앙을 사르다

사찰벽화 명작순례

⑨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1(서측면 벽화).


논산 쌍계사 대웅전 팔금강벽화2(북측면 벽화).

팔금강은 팔대보살 화현한 호법신중
벽화 방제 통해 팔금강 존명 밝혀
팔금강 배치순서 〈석문의범〉과 달라
팔금강 표대 불꽃 형상은 지혜 상징

금강역사는 '금강저를 손에 쥔 자'

불교 교의체계에는 수많은 외호 세력이 등장한다. 인왕상, 사천왕, 팔금강역사, 팔부신중, 화엄신중 등이 그들이다.

사천왕은 수미산 불교세계관에 따른 구성으로 천왕문 건축과 함께 구현하고, 팔부신중은 탑신이나 불화 속에 인비인(人非人)의 성중으로, 화엄신중은 화엄경 설법 공간의 성중으로서 대부분 불화로 조성하여 봉안한다.

팔금강은 문경 김용사 괘불이나 순천 송광사 영산전의 영산회상도에서처럼 괘불, 후불불화 속에 간간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야외의식용 깃발인 번(幡)이나 법당의 벽화로 봉안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팔금강은 문수, 보현, 관세음, 허공장, 미륵, 지장보살 등 팔대보살이 화현하여 나타난 호법신이다. 의례에서 설법 공간을 수호하고 중생의 재앙 일체를 제거해주는 외호신장으로 봉청한다.

'금강역사'는 산스크리트어로 '바즈라파니(Vajrapani)'다. '바즈라'는 번개의 상징인 '금강저'이고, '파니'는 '손'의 의미다. '금강역사'는 곧 '금강저를 손에 쥔 자'의 뜻을 가진다. '금강저'는 마음속 번뇌의 싹을 완전히 없애는 심검이다. 본질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다. 그래서 금강저를 손에 쥔 팔금강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설법하는 공간에 봉청한다. 〈금강경〉을 설하는 야외의식일 경우에는 팔금강을 번으로 제작해 설법 공간을 장엄했다. '불화+사보살도+팔금강도'가 결합한 하나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했다. 팔금강도가 외호하고 그 안에 사보살이 자리하고 의례 공간 중앙에 불화를 모심으로써 하나의 법계 공간으로 성역화한 것이다.

즉, 〈금강경〉이 설해지는 법계 공간으로 경영한 것이다. 이 같은 장엄 형식은 〈오종범음집〉의 '보청의식'에 따른 것으로 양산 통도사, 문경 대승사, 서산 개심사, 예산 향천사 등의 번 불화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왜 '팔금강'인가? 이때의 '8'은 방위 개념이 강하다.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인 사간(사유)의 팔방 개념으로서 전방위적 강력한 외호 결계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팔금강은 외부에 포진된 호법수호의 외적 물리력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금강역사 이름에 함축된 '금강저'에 주목해야 한다. '금강저'가 곧 〈금강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역사는 〈금강경〉 자체가 지닌 내부의 강력한 힘으로 봐야 한다. 경을 설하고 독송함으로써 호법신이 집결하고 강력한 결계의 외호력이 형성되는 까닭이다. 금강역사는 경전 속 지혜로 일체 번뇌를 소멸시키는 내적 힘을 의인화한 존재로 보는 것이 더욱 본질적이다. 금강역사는 조형적으로 보면 우락부락한 인상에 근육질의 괴력을 지닌 수문장 같다. 그 조형의 모태도 헬레니즘 문화의 헤라클레스에 두는 시각도 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인도 북서부 간다라 지방에 전파되고 인도불교와 그리스 문화가 만나 꽃 피운 간다라미술의 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의 불교미술에서는 통도사 극락보전 좌·우측면 벽에 조성한 두 금강역사 벽화에서 그런 양식의 유사성을 살필 수 있다.

2명, 8명, 14명의 금강역사

한국산사 금강역사 조형은 2명, 8명, 14명 등 집합적 군집 양상을 띤다. 현존하는 금강역사 벽화 속 인물 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명 금강역사-파주 보광사 대웅보전, 고창 선운사 영산전, 양산 통도사 용화전/ 2명 금강역사-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영광 불갑사 대웅전, 완주 화암사 우화루/ 3명 금강역사-대구 용연사 극락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4명 금강역사-공주 마곡사 대광보전, 구미 도리사 극락전, 김천 청암사 대웅전/ 5명 금강역사-제천 신륵사 극락전/ 8명 금강역사-논산 쌍계사 대웅전 내벽,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벽, 대구 용연사 극락전 내벽, 부산 범어사 관음전 외벽/14명 금강역사-김제 금산사 미륵전.

팔금강역사 존명	색상과 배치방위	역할	무기 갖춤
1. 청제재금강	청색-동방	재앙 소멸	칼
2. 황수구금강	황색-중앙	구하는 소원 성취	칼
3. 벽독금강	흑색-북방	질병과 독 없앰	칼
4. 백정수금강	백색-서방	번뇌와 고(苦) 소멸	칼
5. 적성(화)금강	적색-남방	빛으로 부처님 뵙게 함	칼
6. 정제재금강		삼재팔난 제거	칼
7. 자현(신)금강		발보리심을 내게 함	칼
8. 대신력금강		중생 지혜력 증대	바위산

이 중 유의미한 팔금강 인물 수는 2명, 8명, 14명이다. 2명의 금강역사는 팔금강역사의 집약으로서 '인왕(仁王)'으로도 부른다. 진리 설법의 시작과 끝을 담았다. 시작의 '아' 금강과 끝의 '훔' 금강으로서 설법의 시작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마장 퇴치와 결계의 의미가 담겨 있다. 험상궂은 분노의 인상을 하고 있지만 이름 속 '어질 인(仁)'자에서 알 수 있듯이 분노의 본질은 자비에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4명의 금강역사는 김제 금산사 미륵전 외벽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구성이다. 14명의 금강역사 구성을 뒷받침할 만한 교의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는 있다. 두 분의 인왕과 사천왕, 팔금강의 결집으로 추정된다. 2+4+8=14의 수리구조다.

하동 쌍계사, 논산 쌍계사에 팔금강

팔금강에서 '8'은 전방위적 모든 위상 개념이 담겨 있다. 어떤 분들일까? 팔금강벽화의 형식적 완전성은 하동 쌍계사 대웅전 외벽에서 발견된다. 야외의식에서 펼치는 법계 공간의 결계형식과 닮았다. 상주 설법하시는 법당의 부처님을 중심에 두고 외벽을 사보살도, 사자 탄 문수동자, 코끼리 탄 보현동자도, 팔금강역사도를 좌우대칭 구도로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01년에 조성한 원본은 떼어내 따로 보관 중이다. 현존하는 벽화는 2006년 해체 수리하면서 원본을 모사한 것이다. 하지만 원본조차 채색 원리와 인물 묘사 등에서 미술적 완성도에 아쉬움을 남긴다. 그때 논산 쌍계사 대웅전 내부의 팔금강벽화는 한국산사의 팔금강벽화를 대표할 만하다. 팔금강역사 8명의 온전한 구성과 함께 장엄예술의 완성도, 1842년경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벽화의 고전성, 인물 배치의 교의적 형식 등에서 주목을 끈다.

또 사자 탄 문수동자, 코끼리 탄 보현동자벽화와 함께 조성해 금강 장엄도량의 형식성을 추구하려 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방제를 통해 모든 금강역사 존명을 밝힌 사실은 특별한 불교미술사적 의의를 갖는다.

화면의 크기는 벽화의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세로 137㎝, 가로 86㎝의 규모다. 벽화는 대웅전 서측면에 3+2=5분, 북측면의 향좌측에 3분을 조성했다.

팔금강역사 배치 순서는 북측면의 오른쪽 금강역사부터 시작한다. 벽화의 흙벽에 흰 글씨로 '봉청 청제재금강'이라는 세로 방제를 적어 뒀다. '봉청(奉請)'이라는 단어는 오직 청제재금강의 방제에서만 나타난다. '봉청'은 '삼가 받들어 청합니다'의 의미다. 법회나 의례 등에서 호법신중을 받들어 청하여 성역에 대한 결계와 외호를 의지하는 것이다. 그로부터 시작해 반시계 방향으로 배치했다. 방제에서 밝힌 팔금강의 존명·역할·배치 방위와 순서는 다음과 같다. 팔금강의 역할은 불교의례집인 〈석문의범〉의 해석에 따랐다.

〈작법귀감〉, 〈석문의범〉 등의 해설 내용과 비교할 때 순서 배치에서 다른 점이 눈에 띈다. 팔금강의 배치는 통상 1.청제재금강-2.벽독금강-3.황수구금강 순으로 이어진다. 논산 쌍계사 벽화에선 2번, 3번 금강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혼선의 양상을 보인다.

팔금강벽화에 사용한 색채는 녹색 계열의 하엽, 청색 계열의 삼청, 적색 계열의 석간주가 중심을 이룬다. 마지막 순서에 그린 대신력금강은 근래에 개채하여 색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팔금강의 인상은 하나같이 험상궂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과묵하다. 얼굴은 잔뜩 찡그려 노인처럼 온통 주름투성이다. 팔금강의 본성인 분노형의 자비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금강 저마다 다른 곳을 노려보듯 지켜보고 있는데 동그랗게 그린 눈과 눈동자의 표현이 익살스럽다. 몸 주위엔 천의의 표대 자락이 나부낀다. 머리 주위를 한 바퀴 휘감은 표대 자락은 불꽃 화염문처럼 이글거리게 표현해 특별한 신성함을 강조하고 있다. 화염문은 모든 재앙과 장애를 소멸시키는 금강역사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금강의 머리 부분에는 빗방울 같은 보주 입자들로 가득하다. 빗방울과 불꽃은 중생의 온갖 번뇌와 재앙을 사루는 힘의 원천이다. 그것은 번뇌의 싹을 단숨에 자르는 금강저와 다름없다. 사실 부처님의 광배도 물과 불, 금강저의 띠로 표현한다. 그 조형의 본질은 무명을 밝히는 진리다.

빗방울과 불꽃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인 공과 무아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깨트릴 수 없는 불멸의 금강반야다. 중생의 모든 번뇌와 업장, 재앙을 사루는 팔금강은 금강반야의 현현일 따름이다.



노재학 작가

